

홀로코스트는 성억압의 산물? 독일 68 성정치 사상의 사상누각 비판

정일권 전 송실대 초빙교수

1장 성혁명의 대전제는 오류: 나치즘은 성억압의 산물 ?

1.1. 독일 나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과 독일 68 성혁명 운동은 독일 나치즘(파시즘)은 성억압의 산물이기
에, 파시즘의 격파를 위해서는 성혁명, 성정치 그리고 성해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성혁명
사상의 대전제는 독일 나치즘(파시즘)은 성억압의 시대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는 역사왜곡이다.
미국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역사학 특훈교수(Distinguished
Professor of History)인 다그마 헤르조그(Dagmar Herzog)는 독일 나치시대의 성정치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 명성을 가진 학자로서, 독일 나치 시대는 성억압의 시대였다는 독일 68 신좌파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녀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역사, 정신분석, 신학과 종교, 유대-기독교 관계,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그리고 독일 나치 시대의 성정치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헤르조그 교수는 독일에서 가장 저명한 강좌인 ‘2021 아도르노-강좌
들’(Adorno-Vorlesungen 2021)에 초대되기도 했다.¹⁾ 2014년 12월에는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막스 베버 강좌’(Max Weber Lecture)에 초대되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당시 독일어권에
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독일과 미국의 신좌파들이 열렬하게 수용해서 유행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²⁾

2013년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는 “과거사 청산으로
부터 전체주의로 ?”라는 제목으로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상세하게 수용하는 글이 실렸다. 헤르조
그 교수는 독일 68 성혁명 운동이 독일 나치시대의 역사를 성억압의 시대로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쾌락의 정치화. 20세기 독일 역사 속에서의 성(性)』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어로 번역된

1) Adorno-Vorlesungen 2021: Dagmar Herzog »Liebe, Geld, Mord (1900-1950)« (1/3).
<https://www.youtube.com/watch?v=HVFXaU43yns&t=4074s>

2) Dagmar Herzog "On Aggression: Psychoanalysis as Moral Politics in Post-Nazi Germany". Max Weber Lecture
by Dagmar Herzog, distinguished professor of history and the Daniel Rose faculty scholar at the Graduate
Center at CUNY, 10 December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X8KvWomwMQ4>

책에서 주장했다.³⁾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에 게재된 이 글에서는 헤르조그 교수의 이 책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성(性)의 문화역사를 다룬 『쾌락의 정치화』 라는 책의 저자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독일 나치 시대의 성(性)에 대한 자세는 특별한 경직과 거부로 각인되어 있다는 통상적인 견해를 반박한다”고 이 글은 소개한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 68 학생운동 안에서 특히 빌헬름 라이히의 이론에 근거해서 자주 주장되어졌다.”⁴⁾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의 이 자료는 이러한 헤르조그 교수의 독일 68 성혁명 “이론의 수정”(Herzogs Revision dieses Theorems)은 아래에 소개할 독일 저명 역사학자 괴츠 알리(Götz Aly)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 이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헤르조그 교수도 괴츠 알리 교수와 유사하게 (독일 나치 시대의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침묵이 가지는 면제적이고 갈등제한적 효과에 대해서 말한다.” 또한 “교회적으로 각인된 관계들과 비교한다면 독일 나치 시대의 철저하게 (성적으로) 자유화된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침묵한다.”⁵⁾ 이 자료는 독일 나치즘의 성정치에서 이루어진 혼전 섹스와 혼외 섹스에 대한 장려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한 헤르조그 교수의 책을 인용한다.⁶⁾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의 이 자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교회들이 나치 시대의 수 많은 낙태의 경우처럼 “가치타락과 나치즘이라는 주제”를 깊이 다루었다면, 독일 68 학생운동은 “성억압 가설(Repressionshypothese)에 대한 수용과 구축”을 시도했고, 이 성억압 가설은 곧바로 독일 슈피겔(Spiegel)지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사실도 소개한다. ⁷⁾

독일 도이치란트퐁크(Deutschlandfunk) 방송도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책을 소개하면서 나치 시대는 성억압적인 시대로 주장하는 독일 68 학생운동과는 달리 “1950년대에는 나치들은 성적인 문란을 장려했다는 믿음이 지배했다”고 소개했다.⁸⁾ 독일 문학비평 저널에 실린 글도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나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배했던 시대였다 (NS-Zeit, in der „Sodom und Gomorrha“ geherrscht habe)는 사실과 독일 나치즘의 성적인 방임(Das sexuelle Laisser-faire im Nationalsozialismus)과 나치 시대의 “독일인들의 성적인

3) Dagmar Herzog, Die Politisierung der Lust. Sexualität in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München: Siedler 2005).

4) Wilhelm Reich, Die Massenpsychologie des Faschismus, Köln, 7. Auflage, 1971.

5) Herzog, Die Politisierung der Lust. Sexualität in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p. 130.

6) Herzog, Die Politisierung der Lust. Sexualität in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p. 80.

7) Martin Maier, Von der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zum Totalitarismus? <https://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162703/von-der-aufarbeitung-der-vergangenheit-zum-totalitarismus>

8) “Im Gegensatz zu den 68ern, die die Nazis ja für sexualrepressiv hielten, herrschte in den 50er Jahren der Glaube, die Nazis hätten die Promiskuität gefördert. Diesen Widerspruch galt es zu verstehen.” <https://www.deutschlandfunk.de/fingerspitzengefuehl-statt-ellenbogen-100.html>

문란”(Promiskuität der Deutschen)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⁹⁾

2021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독일어권에서 가장 저명한 강좌 중 하나인 ‘아도르노-강좌’(Adorno-Vorlesungen)에서의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강의를 ‘함부르크 사회연구소’(Hamburger Institut für Sozialforschung)는 언론보도하면서 헤르조그 교수가 독일 68 학생운동의 ‘파시즘이론’을 반박하면서 주장한 “1920년대 독일은 이미 성도덕과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성적으로 가장 자유분방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독일 68 학생운동은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의 부상은 독일 시민들의 억압적 성도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тезис를 주장했지만,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이를 반박했다고 이 자료는 소개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비정통적 정신분석학자 빌헬름 라이히에 기초한 이러한” 독일 68 학생운동의 “파시즘이론”을 반박하면서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성적으로 자유롭고 문란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주장했다.¹⁰⁾

1.2. 홀로코스트는 성억압의 산물인가 ?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억압된 성(性)의 표현으로서의 파시즘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1970년대로부터 등장한 해석들은 1950년대의 숨 막힌 경직성과 소시민성 가운데 자란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독일 68에 대해서 비록 안티파시즘적이라는 그들의 자기양식화 (Selbststilisierung als antifaschistisch)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엇보다도 안티후기파시즘적인 운동(antipostfaschistische Bewegung)으로, 즉 서독에서 파시즘 이후에 발생한 문화에 대한 반항으로 이해해야만 한다.”¹¹⁾

앞에서 소개한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 자료에서는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에 기초해서 기독교 민주연합(CDU)이 주도했던 서독 연방 공화국의 초대 수상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시대에 이미 “성적으로 문란한 나치들”(Nationalsozialisten als sexuell pervers)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다는 다른 연구도 소개되었다.¹²⁾ 유겐 코곤(Eugen Kogon)은 1946년에

9) <https://literaturkritik.de/id/13161>

10) “..dass Deutschland bereits in den 1920er-Jahren zu den in Sachen Sexualmoral freizügigsten Ländern Europas zählte.” Martin Bauer, Jens Bisky, Die Eugenik verlernen. Bericht zu den Adorno-Vorlesungen „Eugenische Phantasmen: Behinderung, Macht, Moral“ von Dagmar Herzog am 23., 24. und 25. Juni 2021. <https://www.sozipolis.de/die-eugenik-verlernen.html>

11) Herzog, Die Politisierung der Lust. Sexualität in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p. 170.

12) Sebastian Winter, ‚Verjudete Nazis‘, ‚Deutsches Heil‘. Sexualitätswürfe der westdeutschen ‚68er‘-Bewegung vor dem Hintergrund von NS-Vergangenheit und ‚Adenauer-Zeit‘, in: Psychosozial, Nr. 124, 2011, p. 61-73,

처음 출간된 책에서 “나치들의 여성화”(Verweiblichung)와 “나치 당원조직들 속에서의 동성애”에 대해서 적고 있다.¹³⁾ “성적인 청결과 단정함이 독일 나치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었다. 욕욕과 공격적 성적인 연출은 엄금되었다.”¹⁴⁾ 이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 자료에서는 또한 독일 68 “학생운동이 성해방을 통해서 독일인들의 민행에 대한 나치 시대의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죄과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사실을 지적하는 연구도¹⁵⁾ 소개했다.¹⁶⁾

독일 68 성혁명 운동에서의 “쾌락의 정치화” 뿐 아니라, 독일 나치 시대에서의 “쾌락의 정치화”를 분석한 『쾌락의 정치화』 라는 책에서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전체현상으로서의 독일 제 3 제국(나치 시대) 뿐 아니라, 홀로코스트가 정기적으로 성억압의 산물(Holocaust als Produkte sexueller Unterdrückung)로 묘사되고 안티파시즘적인 명령으로서의 성해방(sexuelle Emanzipation als antifaschistisches Gebot)이 주장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의 서독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독일에 대한 재기독교화에 대한 요구”와 “독일 나치에 의해서 파멸혀진 전통적인 가족가치들에 대한 존중의 회복에 대한 숙원”을 발견했다.¹⁷⁾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정치학 교수도 2013년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에서 개최된 “독일 제 3 제국에서의 쾌락의 정치화 - 나치 시대의 성해방”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다그마 헤르조그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독일 나치 시대에는 “성해방”이 “게르만적 혹은 아리안적 특권”으로 정의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성개방적이고 성친화적인 독일 나치 시대의 측면이 전후에 망각되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¹⁸⁾ ‘쾌락의 정치화’는 독일 68 학생운동 뿐 아니라,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도 발생했다. 독일 좌우 낭만주의 학생운동으로서 1933년 히틀러의 나치 학생운동과 독일 68 학생운동은 모두 디오니소스적 ‘쾌락의 정치화’와 ‘성해방’을 추구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13) Winter, ‚Verjudete Nazis‘, ‚Deutsches Heil‘. Sexualitätswürfe der westdeutschen ‚68er‘-Bewegung vor dem Hintergrund von NS-Vergangenheit und ‚Adenauer-Zeit‘, p. 63.

14) Winter, ‚Verjudete Nazis‘, ‚Deutsches Heil‘. Sexualitätswürfe der westdeutschen ‚68er‘-Bewegung vor dem Hintergrund von NS-Vergangenheit und ‚Adenauer-Zeit‘, p. 64.

15) Klaus Theweleit, Salzen & Entsalzen. Wechsel in den sexuellen Phantasien einer Generation, in: ders., Ghosts. Drei leicht inkorrekte Vorträge, Frankfurt/Main u. Basel 1998, p. 127f.

16) Martin Maier, Von der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zum Totalitarismus? <https://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162703/von-der-aufarbeitung-der-vergangenheit-zum-totalitarismus>

17) Dagmar Herzog, Die Politisierung der Lust. Sexualität in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Gießen: Psychosozial-Verlag, 2021), p. 3.

18) Ljiljana Radonic, "Politisierung der Lust im Dritten Reich - 'Befreiung' der Sexualität auf nationalsozialistisch", TU Darmstadt. https://homepage.univie.ac.at/ljiljana.radonic/vortraege_en.html

2장 . 독일 68 학생운동의 “역사왜곡”(Geschichtsverdrehung)

2. 1. 독일 68 성정치 사상의 역사왜곡

오스트리아 국영방송(ORF)는 2017년 4월 8일 “쾌락의 정치화”라는 제목으로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쾌락의 정치화』 라는 책이 한 편으로는 독일 ‘제 3 제국’(나치 시대)에서 성(性)이 실제로는 어떠했는지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러한 역사왜곡(Geschichtsverdrehung)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라는 소제목 아래서 방송했다.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에 의하면 “제 3 제국(나치 시대)에서는 어떠한 암전함도 존재하지 않았다”(Keine Prüderie im "Dritten Reich")고 이 방송은 소개했다.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고려한다면 독일 나치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다. 단 그 성적인 개방이 건강한 아리아인들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러하다”고 이 방송은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했다. “나치들은 20세기 초의 성적인 개방성(sexuellen Freizügigkeit)과 맥을 같이 했고,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성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였다”고 헤르조그 교수가 주장한다고 이 방송은 소개했다. “처음에는 젊은 아리아인들은 비밀스럽게, 그러나 곧바로 완전히 노골적으로 섹스하도록 장려되었다(bald ganz offen zu Sex ermutigt). 1934년 독일소녀동맹(BDM:Bund deutscher Mädchen)의 지도자 여성은 자신들에게 배당된 젊은 소녀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도록 장려하는(zum vorehelichen Geschlechtsverkehr zu ermutigen)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명령을 ”엄중하게 비밀스럽게“(streng geheim) 수행하라는 메모와 함께 받았다”고 이 오스트리아 방송은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방송했다. 이 방송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미 1935년에 독일 소녀동맹(BDM)에서 발생한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드레스덴에서는 빅토어 클렘퍼러(Viktor Klemperer)는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안네마리 쾰러(Annemarie Köhler)는 병원들이 임신했을 뿐 아니라, 임질(성관계를 통해 임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남성 또는 여성 생식기의 감염증)로 병든 15세 소녀들로 넘쳐나고 있다 절망하면서 이야기했다.” “1950년대의 암전함”(“Prüderie in den 1950er Jahren)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방송은 1950년대에는 “보수주의와 암전함이 반나치주의의 초기 형식으로 해석되어졌다”고 적고 있다.¹⁹⁾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독일 68 학생운동의 “독일의 민족적 과거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된 이해”(a profoundly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past)를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한다.²⁰⁾ “독일 제 3 제국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파계적이었기에”(the Third Reich had been sexually decadent and morally transgressive) 전후 기독교민주연합(CDU) 정당이

19) “Die Politisierung der Lust”. <https://oe1.orf.at/artikel/203960/Die-Politisierung-der-Lust>

20) Dagmar Herzog, Sex after fascism: memory and morality in twentieth-century Germany (Princeton, NJ,2005), 183.

주도하는 1950년대의 독일은 이러한 나치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했다. 독일 60년대 급진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독교민주연합 국가(CDU-Staat)로서의 1950년대 독일을 나치 시대의 연장으로 왜곡되게 이해했다. 독일 68 세대들은 그들이 성장한 1950년대의 “청교도주의”에 반항하면서 “스스로는 ‘안티파시즘적인’ 입장을 추구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실제로는 나치들의 기독교 도덕에 대한 부정에 더 근접하는 입장이었다.”²¹⁾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비롯해서 20세기 독일에서의 성(性)에 대한 최근 다른 역사적 연구들은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의 반부르주아적이고 성적으로 파계적인 측면들”(the antibourgeois and sexually transgressive aspects of Nazism)을 잘 보여주고 있다.²²⁾ 이 연구는 히틀러유겐트와 독일소녀동맹(BDM)과 같은 학생운동에서 발견되는 “성적인 문란, 그룹 섹스, 소아성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뻔뻔스러운 성적인 쾌락 추구” 등에서도 소개하고 있다.²³⁾

독일 저명 언론 ‘쾰른도이치짜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2010년 5월 19일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다른 곳에서 소개한 히틀러의 학생운동이었던 ‘히틀러유겐트’(Hitlerjugend)에서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사실을 “히틀러유겐트에서의 자유로운 섹스”(Freier Sex in der HJ)라는 소제목으로 소개했다. 또한 성적인 “부정을 장려하다”(Zur Untreue ermutigt)라는 소제목으로 나치 시대에서 성적인 문란을 소개했다. 또한 이 언론은 “독일 나치즘 시대의 나체문화”(Die nationalsozialistische Nacktkultur)도 존재했다는 사실도 소개한다. 그리고 전후 1950년대 기독교민주연합(CDU) 정당이 주도한 기독교적 보수주의 시대에는 가정적이고 성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들을 “나치들의 반부르주아적인 부도덕”(die anti-bourgeoise Lasterhaftigkeit der Nazis)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²⁴⁾

독일 문학비평 저널(Die Zeitschrift literaturkritik.de)은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책을 서평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그녀의 역사연구가 독일 68 운동의 “잘못된 역사버전들”(falsche Geschichtsversionen)을 반박한다고 소개한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교회는 “소돔과

21) Mark Fenimore, “The Recent Historiography of Sexuality in Twentieth-Century Germany,” The Historical Journal. Vol. 52, No. 3 (Sep., 2009), 772.

22) Mark Fenimore, “The Recent Historiography of Sexuality in Twentieth-Century Germany,” The Historical Journal. Vol. 52, No. 3 (Sep., 2009), 773.

23) “the incidence of promiscuity, group sex, ‘sexual intercourse involving minors’ and, generally, unabashed pleasure in sexuality.” Mark Fenimore, “The Recent Historiography of Sexuality in Twentieth-Century Germany,” The Historical Journal. Vol. 52, No. 3 (Sep., 2009), 775.

24)

<https://www.sueddeutsche.de/kultur/das-buch-dagmar-herzog-die-politisierung-der-lust-die-german-angst-vor-sex-1.892318-0>

고모라'가 지배한 나치-시대”(NS-Zeit, in der „Sodom und Gomorrha“ geherrscht habe)를 비판했다고 소개한다. 이 문학비평 저널은 독일 나치 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반박하면서 나치 시대가 철두철미하게 쾌락이 강조되고(durchaus lustbetont) 결혼이 반드시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성정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했다. 독일 나치 시대의 성적인 방임(Das sexuelle Laisser-faire im Nationalsozialismus)에 대해서 헤르조그 교수는 분석한다고 이 서평은 소개한다. “에로티시즘에 대한 나치적 의지”(nationalsozialistische Wille zur Erotik)가 관철되었고 강제되었다고 이 서평은 소개한다. “혼전 성교와 혼외 성교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keine Seltenheit), 그것은 관용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선전되기도 했다”고 이 문학비평 서평은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한다. 독일 나치 시대의 이러한 “독일인들의 성적인 문란(Promiskuität der Deutschen)은 1945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이 서평은 소개한다.²⁵⁾ 히틀러의 최측근 하인리히 히믈러(Heinrich Himmler)는 일부다처제까지 장려했다.²⁶⁾

2008년 4월 10일 독일 저명 언론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는 “침대 속의 안티파시즘”(Antifaschismus im Bett)이라는 제목으로 역사학 교수 다그마 헤르조그의 연구가 독일 68 운동의 “관점주의적 협착”(perspektivischen Verengung)을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독일 언론은 그녀의 연구가 독일 나치 시대를 “보수적이고 성적으로 경직된” 사회로 묘사하는 것은 독일 68 성혁명 운동의 “역사적 사실들에 위배되는 하나의 수사학적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소개한다. 물론 독일인들에게만 제한되었지만, “나치즘은 성적으로 매우 관대했다”(sexuell außerordentlich freizügig)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이 언론은 소개한다. “성(性)과 쾌락에 적대적인 것은 오히려 독일 전후 시대였다.” 그래서 이 독일 언론은 독일 68 신좌파(Neue Linke)는 비록 자신들은 스스로를 안티파시즘적으로(antifaschistisch) 이해하지만, 신좌파를 안티후기파시즘적인 운동(antipostfaschistische Bewegung)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더 옳다는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한다. 이 언론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독일 68 운동은 성억압과 파시즘적인 시스템의 형성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했다. 이 이론의 대표적 증인은 바로 정신분석학자 빌헬름 라이히다”. 이 언론은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독일 과거사에 대한 68 세대의 관계는 그들의 자기인식(Selbstwahrnehmung) 속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모순적이다”고 소개한다. “독일 파시즘에 대한 독일 68의 논쟁은 그들의 어린이 시절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우선적으로 관련된다...독일 68 세대는 전후 시기와 나치즘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유사성들을

25) Jörg von Bilavsky, “Last mit der Lust. Dagmar Herzog über Sex und Erinnerung in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https://literaturkritik.de/id/13161>

26) Nicole Loroff, 'Gender and Sexuality in Nazi Germany', Constellations, Vol. 3, 1, 2011, 54.

강조하지만, 이는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시대에 대한 협착된 관점으로 빠지게 되었다. 나치즘에 대해서 독일 68 세대는 자주 무차별적인 안티파시즘 개념을 적용했다”고 이 언론은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 언론은 또한 독일 68 세대가 “그들의 언어적 급진주의와 파시즘 개념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용을 통해서 자주 독일 나치즘에 대한 사실을 담은 과거사 청산(sachgerechten Aufarbeitung des Nationalsozialismus)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에 기초해서 주장한다. 이 언론은 또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독일 68 성혁명 운동이 “어린 아이들의 성(性)에 대한 집중과 그것의 정치화로 인해서 새로운 규범이 탄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든지 혹은 아니든지 간에 성적인 존재(sexuelle Wesen)으로 활동해야 한다. 1980년대의 가족 내에서의 성폭력과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논쟁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의 성(性)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²⁷⁾

2.2. 독일 68 성정치의 도그마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회피 전략

독일 저명 언론 ‘짜이트’(Zeit)지도 2005년 10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책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에는 나치즘은 성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허용적인(Nationalsozialismus als sexuell unerträglich permissiv) 시대로 간주되었기에, 독일을 도덕적으로 새롭게 정초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엄격성(Sittenstrenge)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독일 68 세대에게는 반대로 나치즘은 성적으로 억압적인 것으로, 억압된 쾌락의 정권으로 간주되었기에 성해방이 제공된 길로 보였다”. 이 언론도 앞에서 소개한 “엄격하게 비밀스럽게”(streng geheim) 명령되어져서 독일소녀동맹(BDM)에서 장려된 혼전 성교를 지적하는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도 소개한다. “(성적인) 열정은 기독교적 도덕에 맞서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성화되었다”고 이 언론은 적고 있다. 이 독일 주요 언론은 “독일 68 세대의 성적인 문란함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학살을 성억압의 결과로서(Massenmord als Folge sexueller Unterdrückung)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분석하는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했다.²⁸⁾

독일 저명 언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AZ)도 2018년 11월 2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독일-미국 역사가 다그마 헤르조그는 성(性)의 역사에 대한 그녀의 도발적인 연구들로

27) Beate Schappach und Andreas Schwab, “Antifaschismus im Bett.” <https://www.fr.de/politik/antifaschismus-bett-11579933.html>

28) Elisabeth von Thadden, “Die ruinierte Intimität. Dagmar Herzogs "Politisierung der Lust" rekonstruiert, wie im deutschen 20. Jahrhundert bis in die Betten hinein regiert wurde.” <https://www.zeit.de/2005/42/ST-Lust-TAB>

잘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 언론은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책인 『쾌락의 정치화』(2005) 속에서 독일 나치 시대의 성정치가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소개한다. “헤르조그의 연구는 빌헬름 라이히의 책들이나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책들로부터 1968년 학생운동이 도출한 가르침, 곧 나치즘은 무엇보다도 성억압의 토양 속에서 자란 것이라는 광범위하게 퍼진 견해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헤르조그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성혁명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 저명 언론은 소개한다.²⁹⁾

“제 3 제국에서의 자유로운 사랑”(Freie Liebe im Dritten Reich)이란 제목으로 독일의 다른 일간지(Kölner Stadt-Anzeiger)도 2006년 1월 12일 헤르조그 교수의 『쾌락의 정치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미국의 역사가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독일 성(性)-역사의 근본확신(Grundgewissheit)을 흔들고 있다...헤르조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나치들은 결코 암전하고 경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로 ‘민족공동체’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랑과 신체숭배(Körperkult)를 하도록 장려했다. 그녀에 의해서 훌륭하게 논증된 이러한 테제로서 이 미국 역사가는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전체 국민의 집단적 기억 속에 속하는 것, 곧 나치 시대는 성(性)적대적이었다는 근본확신(Grundgewissheit)을 흔들고 있다. 다그마 헤르조그의 연구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의 편협하고 엄격한 성도덕은 나치 시대의 직접적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나치 시대에 대한 반작용이었다...이러한 집단적 전략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동책임(죄의식)을 떨쳐 버리고 부인하는데 사용되었다.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히 서독에서의 공적인 논쟁은 성(性)을 2차 세계대전 직후 파시즘과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의 중심점에 밀어서 옮기는 것이었다... (전후) 독일 교회들은 나치-집권 동안의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긍정적인 대조를 추진했다. 실제로 기독교 도덕관념들의 르네상스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이 독일 언론은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에 기초해서 앞에서 많이 소개한 독일소녀동맹(BDM) 뿐 아니라, 히틀러유겐트(Hitlerjugend)에서의 성적 문란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독일 사민당(SPD) 당원이었다가 이후 탈당한 사람의 보도에는 히틀러유겐트에 대해서 ‘문란한 성관계(Promiskuität)가 사실상의 수용된 상태였다’고 적혀 있다. 독일 나치 시대의 교육가 알프레드 제플린(Alfred Zeplin)은 ‘혼전 성관계를 장려하기 위한 5가지 계획’을 개발했고 성적인 행위들은 죄악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강조했다.” 이 독일 언론은 또한 “...나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발기부전과 여성 오르가슴을 연구하는 집중적인 성연구(eine intensive Sexualforschung im Dritten Reich)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 독일 언론은 헤르조그 교수의 “20세기 독일 역사를 성(性)에 대한 정치적 도구화(politischen Instrumentalisierung

29) Andreas Mayer, “Als der gesunde Sex erfunden wurde”.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buecher/rezensionen/sachbuch/sachbuch-zur-geschichte-der-sexualitaet-von-dagmar-herzog-15912303.html>

von Sexualität)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공헌을 높게 평가했다.”³⁰⁾

독일 68 성혁명 운동은 이렇게 (독일 민족)사회주의자 히틀러와 나치들의 만행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성(性)에 대한 정치적 도구화’를 시도했다. 독일 68 성혁명, 성해방 그리고 성정치 사상은 그렇기에 의도적인 역사왜곡에 기초한 지적 사기다. 20세기 후반 독일 학계와 사회에서 한때 지배적이었던 이러한 독일 68의 근본도그마와 근본확신을 역사학 교수 다그마 헤르조그는 성공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그녀의 역사연구는 21세기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정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치문화 매거진 치체로’(Cicero. Magazin für politische Kultur)도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도발적인 연구가 독일 사회에서 “성(性)적인 것으로 회피된 (홀로코스트) 책임-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소제목으로 그녀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보도했다: “독일 나치즘과 성(性)에 대한 이러한 관련성은 왜 발생한 것인가? 헤르조그 교수의 관찰에 의하면 1945년 이후로 (홀로코스트) 책임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질문들이 성(性)의 영역에서 - 특히 윤리성이냐 아니면 성적인 방종이냐에 대한 논쟁 속에서 - 제기되었다. 독일인들은 나치즘으로부터 파생된 도덕적 갈등들을 덜 고통스럽게 견딜 수 있는 다른 삶의 영역으로 회피시켰다는 것이 헤르조그 교수의 테제다.” 즉 독일 68 세대와 전후 독일인들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나치즘의 아만과 만행에 대한 고통스럽고 갈등적인 공동책임에 대한 문제를 ‘성(性)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해서 보다 덜 고통스럽고 덜 갈등적인 영역, 곧 성(性)의 영역으로 회피하고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이 정치문화 매거진은 독일 나치 시대에 발생한 “여성 오르가슴을 위한 선전선동”이라는 소제목 아래서 “지금까지 나치-시대에 대한 독일인의 관점을 지배하는 독일 68 세대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나치 시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헤르조그 교수를 소개하면서 당시 독일 68 학생운동은 “피가학적 경향들, 억압된 동성애 혹은 경직성과 내숭 떨기와 같은 모든 가능한 불행한 형식들을 나치에게 책임을 부가시켰다”고 적고 있다. 이 정치문화 매거진은 독일 나치 시대에는 “성적인 문란(sexuelle Freizügigkeit)이 지배했다”는 헤르조그 교수의 주장이 독일 68 세대의 관점이 아직도 지배적으로 남아있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거의 격분을 일으키는(obszön) 정도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독일 68 세대의 관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쾌락친화성, 독재 그리고 대량학살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헤르조그 교수의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연구에 접하는 독일인들의 상황을 잘 표현했다. 이 매거진은 “왜 성(性)이 언제나 다시금 정치적 논쟁의 전면에 등장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³¹⁾

30) Michael Hirz, “Freie Liebe im Dritten Reich”.<https://www.ksta.de/freie-liebe-im-ritten-reich-13295996?cb=1644530067874&cb=1644530059441&cb=1644530052426&cb=1644530041385&cb=1644113658791&cb=1644113647798&cb=1644113638019&cb=1644113630025&>

31) Hilal Sezgin, “Lasst uns lieber über Sex reden”, <https://www.cicero.de/kultur/lasst-uns-lieber-ueber-sex-reden/44372>

이 정치문화 매거진은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진정한 책임에 대한 질문을 이탈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목적을 가진 전적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회피”(eine schlichte Verschiebung mit dem unbewussten Ziel, der eigentlichen Schuldfrage aus dem Weg zu gehen)를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 매거진은 독일 68 성혁명 사상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회피 전략을 다음과 같이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서술했다: “동시에 제 3 제국 시대(나치 시대)에 부분적으로 쾌락적이었던 무질서에 대한 기억은 퇴색했고 이러한 기억상실은 다른 두 번째의 심리학적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즉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극도로 행복했던(쾌락적이었던) 순간들을 제거함으로써,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동책임감(Gefühl der Mitschuld)을 감소시키게 된다. 독일인들은 나치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흑독한 시대였다고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말하게 되었다. 독일 나치-정권이 헤르조그 교수의 확신에 의하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gezielt) 독일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 추진했던 성적 쾌락이라는 보너스(Gratifikation sexueller Lust)는 독일인들의 기억 속에서 제거되게 되었는데,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제거되게 되었다. 그렇게 팔린 양심의 안정(Die so erkaufte Gewissensruhe)은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게 수정된 형식 안에서 가족중심적이고 안전한 1930년대에 대한 ‘기억’은 처음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면제(Entlastung)에 기여했지만, 이후에는 독일 68 세대에 의해서 비난으로 변하게 되었다. 독일 68 학생운동은 나치 시대의 잔인성과 대량학살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나치들의 성적대성(Sexualfeindlichkeit)을 계승했다고 생각되는 자신들의 부모세대를 비난했다.” 이 정치문화 매거진은 그렇게 “독일 68 세대는 전후 1950년대의 (기독교적) 성적인 엄격함을 독일 제 3 제국(나치 시대)로 투영시켜버렸다”는 헤르조그 교수의 입장을 소개한다. 그렇게 독일 68 성혁명 운동은 “독점자본주의의 결과로서의 파시즘”이라는 그들의 “마르크스주의적 테제들”을 통해서 독일 나치 시대의 그들의 부모들의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면제시키기를 원했다”고 이 매거진은 잘 소개했다.³²⁾

이 매거진은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성혁명 사상을 홀로코스트에 대한 정치적 책임회피와 책임면제의 수단과 전략으로 도구화했던 독일 68 학생운동의 역사왜곡을 고발하면서도 홀로코스트와 같은 독일인들의 야만과 폭력에 대한 책임문제를 직면하게 된 첫 세대로서의 독일 68 세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독일 68 세대에 대한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관점은 폭로적이면서도 많은 동정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독일 68 세대는 나치들인 남긴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세대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참된 책임자들은 나치 시대의 그들의 부모세대였지만, 그 부모세대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회피, 부정 혹은 자기기

32) Hilal Sezgin, “Lasst uns lieber über Sex reden”, <https://www.cicero.de/kultur/lasst-uns-lieber-ueber-sex-reden/44372>

만만을 선호했다.”³³⁾ 앞에서 소개한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 최근 자료에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독일 68 출신의 저명한 역사학자 괴츠 알리 교수도 헤르조그 교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독일 68 세대가 나치 시대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문제에 직면한 첫 세대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논증한 바 있다. 괴츠 알리 교수는 독일 68 학생운동이 나치청산을 주도했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사실은 나치청산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 보다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2018년 5월 13일 독일 국영방송 도이치란트퐁크(Deutschlandfunk)와의 인터뷰에서 괴츠 알리 교수는 “68 운동 50주년. 68 운동권의 업적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제목으로 68 운동권 출신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보호받지 못한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아우슈비츠의 심연을 직시해야만 했던 첫 세대였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당시 누구도 우리 68 세대를 돕지 않았기에, 우리는 아우슈비츠라는 야만에 대해서 거칠게 직면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우리가 특히 매우 감수성이 민감하게 될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폭력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으며” 그렇기에 “68 운동은 독일에 있어서 하나의 회피반응(Ausweichreaktion), 곧 필요한 회피반응이었다”고 괴츠 알리 교수는 분석했다. 괴츠 알리 교수는 아우슈비츠와 홀로코스트와 같은 자신들의 부모세대들이 범한 야만과 폭력을 최초로 직면하게 된 첫 세대로서 독일 68 운동은 “하나의 책임전가(Schuldverschiebung), 회피반응(Ausweichreaktion)인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아우슈비츠와 홀로코스트의 야만을 일으킨) 이러한 독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한다. “우리 68 운동권이 나치즘을 청산한 것이 아닌데(Wir bekämpfen nicht den Nationalsozialismus), 우리 이전에 이미 독일 판사들과 검사들 그리고 교도소 공무원들 그리고 아이히만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치즘을 청산했다”고 괴츠 알리 교수는 분석하면서 독일 68 학생운동이 나치 과거사를 청산했다고 주장하는 독일 68 운동의 과장되고 과잉된 자기신화화에 대해서 비판한다. 괴츠 알리 교수는 이렇게 독일 68 학생운동의 과장되고 과잉된 “상상으로 만든 공헌들”(eingebildete Verdienste)이 허구임을 주장한다. 독일 68 학생운동은 자신들이 나치 청산과 민주화를 이룬 세대라고 자기영웅화하고 자기신화화하지만, 괴츠 알리 교수는 독일 68 학생운동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거부하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 운동이었다고 비판한다.³⁴⁾

33) Hilal Sezgin, “Lasst uns lieber über Sex reden”, <https://www.cicero.de/kultur/lasst-uns-lieber-ueber-sex-reden/44372>

34) “50 Jahre 68er-Bewegung. Verdienste der 68er sind deutlich kleiner, als es sich viele einbilden”. Götz Aly im Gespräch mit Dirk-Oliver Heckmann. 13.05.2018. <https://www.deutschlandfunk.de/50-jahre-68er-bewegung-verdienste-der-68er-sind-deutlich-100.html#:~:text=50%20Jahre%2068er%2DBewegung%E2%80>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는 독일 68 학생운동의 나치 시대에 대한 이러한 역사왜곡적인 역사적 기억들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며”, 그러한 성억압적인 나치 시대에 대한 이러한 허구적 기억들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며 새롭게 갱신되며 심지어 나치 시대의 실제적이고 원래적인 복잡한 현실 보다 더 많은 해석능력을 획득할 정도로 증폭되었다”고 주장한다.³⁵⁾ 헤르조그 교수의 주장처럼 독일 나치 시대에 아리안인들 사이의 성욕망과 성관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성화되었고(gezielt sakralisiert) 그러한 나치 시대의 쾌락의 정치화는 기독교 도덕과 대조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성적인 관점에서 잘 정돈된 개인의 삶으로부터 후퇴”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동책임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헤르조그 교수는 사회학자 마틴 단네커(Martin Dannecker)의 가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헤르조그 교수는 독일 68 성혁명 운동의 “쾌락을 향한 무죄한 추구라는 신화”(Mythos der unschuldigen Suche nach Lust)를 힘있게 반박하고 있다. 헤르조그 교수는 독일 68 “신좌파의 정치적 목적들을 위한 성의 도구화”(Instrumentalisierung der Sexualität für die politischen Zwecke der Neuen Linken)를 역사적으로 차분하게 고발하고 있다.³⁶⁾

왜 어느 날 갑자기 성담론이 모든 정치적 논쟁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는지 질문해야 한다. 성담론을 정치담론의 화두로 처음으로 부상시킨 세대는 독일 68 세대인데, 우리는 헤르조그 교수의 주장처럼 이 독일 68 성혁명 담론이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회피하기 등장한 독일 68 성혁명 사상이 21세기 글로벌 성혁명과 사회주의 성정치 사상의 원조와 진원지가 되었다. 이 독일제인 68 성혁명 사상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독일 나치의 야만과 폭력에 대해서 가지는 독일인들의 불편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기획되고 도구화된 사상이기에 결코 21세기에 글로벌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상이 아니다. 독일 68에 기원한 사회주의 성혁명, 성정치 그리고 성해방 사상의 역사왜곡에 기반한 지적 사기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 68 사회주의 성정치 사상의 실패, 황혼 그리고 종언을 21세기에는 선언해야 한다. 21세기 헝가리와 폴란드와 같은 동부유럽이 이 서유럽 국가들의 성혁명 사상에 주체적이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21세기 대한민국도 보다 주체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

3장. 독일 68 성정치 운동의 낭만주의적 퇴행

³⁵⁾ %9EVerdienste,Politikwissenschaftler%20und%20Historiker%2C%20im%20Dlf.

35) Dagmar Herzog, Die Politisierung der Lust. Sexualität in der deutschen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München: Siedler 2005), p. 12.

36) http://www.satt.org/gesellschaft/05_12_herzog.html

독일 낭만주의 운동의 나체주의와 ‘안티파시즘적 육체’

오스트리아 언론 ‘프로필’(Profil)은 “하켄크로이츠 아래에서의 섹스: 학문에서의 나치들의 쾌락이해”라는 제목으로 헤르조그 교수의 “스탠다드 연구”(Standardwerk)로 간주되는 『쾌락의 정치화』가 독일 나치 시대의 성생활이라는 “금기영역”(Tabuzone)을 논의한다고 소개했다. 이 언론은 “그녀의 감탄스러운 테제는 독일 나치즘은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억압된 성격으로 특징지어진다는 독일 68 세대의 오래된 도그마를 수정한다”고 소개한다. 이 언론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좌파 인텔리겐치아들은 무엇보다도 프로이트의 제자인 빌헬름 라이히와 독일인들에게 강요된 육체-탱크(Körper-panzer)에 대한 라이히의 이론에 호소했다. 쾌락과 에로티시즘을 체험할 수 없는 육체-탱크의 무능력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결국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학살로 분출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 헤르조그 교수는 주장한다. 나치들의 목적은 성(性)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었다....나치-선전선동에는 아리안적-게르만적 자연성(Natürlichkeit)과 대조되는 시민적 협착과 편협한 암전함에 대한 논쟁적 묘사들로 가득차 있다. 아리안적 삶의 느낌은 나체주의(Freikörperkultur)와 생활개혁운동(Lebensreformbewegung)의 요소들을 수용했다. 19세기 중반부터 독일과 스위스에서 형성된 생활개혁가들(Lebensreformer)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모토 아래서 시골생활, 반물질주의적 생활스타일 그리고 채식주의를 도시 문명 속에서 발견되는 문명타락에 맞서는 전략으로 설파했다.”³⁷⁾

우리는 이후에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반계몽주의적 나체주의가 일종의 남성자들의 클럽이었던 반더포겔 운동(Wandervogel Bewegung), 히틀러유겐트(Hitlerjugend), 독일 개혁교육 운동 그리고 독일 68 학생운동과 녹색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논의할 것이다. 영미 계몽주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전통에 맞서서 독일 특유의 독자노선(Deutscher Sonderweg)을 주장하면서 독일 낭만주의는 이후 좌우로 분열된다. 독일 좌우 낭만주의-반계몽주의 학생운동에서 이러한 아리안적-게르만적 자연성(Natürlichkeit) 그리고 나체주의(Freikörperkultur)가 장려되었다. 이후 소개할 독일 “교육학의 거장들”(한길사)에 소개된 독일 개혁교육 운동가들도 바로 독일 특유의 반문명주의적-루소주의적 생활개혁운동(Lebensreformbewegung)과 19세기 중반부터 독일과 스위스에서 형성된 생활개혁가들(Lebensreformer)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디오니소스적 나체

37) Sebastian Hofer, “Sex unterm Hakenkreuz: Das Lustverständnis der Nationalsozialisten in der Wissenschaft”.
<https://www.profil.at/oesterreich/sex-unterm-hakenkreuz-das-lustverstaendnis-der-nationalsozialisten-in-der-wissenschaft/400889099>

주의 문화 속에서 동성애적 소아성애(남색)이라는 아동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다.

이 오스트리아 언론은 다른 언론에서도 소개한 독일소녀동맹(BDM)에서 강제된 혼전 성관계에 대한 명령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히틀러유겐트(Hitler Jugend)에서도 성적인 문란이 성장한 소년들에게는 환영받는 자세로(Promiskuität bei heranwachsenden Knaben als erwünschtes Verhalten)로 간주되었다”는 사실도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에 기초해서 소개했다. 또한 이 언론은 히틀러의 핵심측근 괴벨스(Josef Goebbels)의 “성중독”(Sexsucht)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³⁸⁾ 빌헬름 라이히의 육체-탱크(Körper-panzer) 이론에 맞서서 독일 68 성혁명 운동은 헤르조그 교수의 『쾌락의 정치화』의 6장 제목처럼 “안티파시즘적 육체”(Antifaschistische Körper)를 추구했는데, 이 안티파시즘적 육체는 무엇보다도 소아성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헤르조그 교수는 “안티파시즘적 육체: 학생운동, 성혁명 그리고 반권위주의적 어린이교육”이라는 논문에서도 이 안티파시즘적 육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³⁹⁾

독일 68 성혁명은 소아성애를 “안티파시즘적인 위대한 행위”로 찬양했는데, 이는 이후 소개될 것이다. 또한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 나체주의(Freikörperkultur)는 20세기 초 독일 나치 시대의 독일 개혁교육에서도 발견된다. 이후 자주 언급될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도 독일 낭만주의적 나체주의 교육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나체주의는 독일 개혁교육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청교도적 성도덕의 대척점에서 독일 낭만주의적-디오니소스적 나체주의를 표방한 독일 나치 시대의 반더포겔(Wandervogel) 운동, 히틀러유겐트(Hitler Jugend), 독일 68 운동과 적공파 그리고 독일 녹색당과 같은 독일 특유의 좌우 낭만주의-사회주의 성소수자 학생운동(동성애적 소아성애 학생운동)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이후에 상세하게 소개될 것이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국내 김누리 교수가 찬양하는 독일 68 반권위주의적-루소주의적 진보교육의 메카인 오덴발트 학교(Odenwald Schule)는 3미터 높이의 거대한 남근상을 교육상징처럼 세워놓고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 나체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2010년 이후로 오덴발트 학교가 “소아성애자들의(혹은 남색자들의) 천국”이었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학교라는 사실이 마침내 폭로되었다.⁴⁰⁾ 수십년간 12명의 어린 학생들이 소아성애적 강간으로 인해서 자살했고 약 900 여명의 희생자가 있었다. 스위스 쥐리히 대학의 교육학 교수 위르겐 월커스는 “개혁교육:

38) Sebastian Hofer, “Sex unterm Hakenkreuz: Das Lustverständnis der Nationalsozialisten in der

39) Dagmar Herzog, “Antifaschistische Koerper: Studentenbewegung, sexuelle Revolution und antiautoritaere Kindererziehung,” in Nachkrieg in Deutschland, ed. by Klaus Naumann(Hamburger Edition, 2001).

40)

https://www.welt.de/kultur/literarischewelt/article138531446/Das-schmutzige-Geheimnis-der-linken-Paedagogik.html?fbclid=IwAR2GZvJ8StVRc93_hSX2XR5PDTQuGG7Qg-zySF6IAXiN0Qm4GR4SReYlWY

하나의 독일적 운명인가? (»Reformpädagogik«: Ein deutsches Schicksal?)라는 강연에서 오덴발트 학교 뿐 아니라, 한길사에서 출간된 『교육학의 거장들』⁴¹⁾에서 독일 ‘교육학의 거장들’로 소개된 독일 개혁교육의 선구자들이 나체교육, 알몸교육, 교육학적 에로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핵심개념으로 주장하면서 소아성애적(혹은 남색적) 교육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덴발트 학교를 비롯한 독일 개혁교육에서 나체교육은 핵심적 이념이었다.⁴²⁾ 성혁명 개념의 창시자 빌헬름 라이히도 알몸교육과 나체교육을 주장했는데, 이는 모두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 운동의 유산이다. 독일 나체주의는 독일 낭만주의의 산물이다.

2010년 5월 19일 남독일 신문(Süddeutsche Zeitung)은 “홀로코스트를 성(性)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Den Holocaust in den Bereich der Sexualität verschoben)이라는 소재목으로 “독일 68 학생운동이 그들의 부모세대에 의해 조직된 홀로코스트 이후의 죄과와 슬픔을 정치적 행동주의와 성(性)의 영역으로의 이동들(Verschiebungen)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다는 사실에서 68 학생운동의 트라우마를 인식했던 (독일 사회학자) 라이무트 라이히에(Reimut Reiche)의 해석을 여기서 헤르조그 교수는 따르고 있다”고 적고 있다.⁴³⁾ 즉 독일 68 학생운동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것을 성(性)적인 영역으로 이동시켜서 홀로코스트와 대량학살은 성억압의 산물과 결과라는 역사왜곡에 기반한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혁명, 성정치 그리고 성해방 사상은 독일 특유의 역사로부터 나온 이론이기에 결코 보편적으로 일반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글로벌 성혁명 운동에서 유행하고 있다.

“성적인 독자노선? 독일에서의 쾌락과 악”(A Sexual Sonderweg? Pleasure and Evil in Germany)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앤 앨런(Ann Allen) 교수는 헤르조그 교수의 책에 대한 서평을 ‘인문학과 사회과학 온라인’ 저널(H-Net: Humanities & Social Sciences Online)에 기고했다. 앤 앨런 교수는 헤르조그의 교수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면서 소개한다: “나치 시대의 성적인 요소들에 대한 독일인들의 집착은 그들로 하여금 홀코스트의 역사를 직면하도록 권장하지 못했다. 성(性)에 대한 끊임없는 독일인들의 논의는 사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를 왜곡하고자 하는 독일인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강화시켰다.”⁴⁴⁾ 앤 앨런 교수도

41) 한스 쇼이얼 외 저/정영근 외 역, 『교육학의 거장들 1』 (서울: 한길사, 2004).

42) Jürgen Olkers, : »Reformpädagogik«: Ein deutsches Schicksal? Vortrag in der Universität Wuppertal am 13.07.2010. <https://www.uzh.ch/cmsssl/ife/dam/jcr:00000000-4a53-efca-0000-00006ec8fb56/WuppertalRP.pdf>

43)

<https://www.sueddeutsche.de/kultur/das-buch-dagmar-herzog-die-politisierung-der-lust-die-german-angst-vor-sex-1.892318-3>

44) “In fact, the endless discussions of sex reinforced a general tendency to avoid responsibility and to distort the past.” Ann Allen. Review of Herzog, Dagmar, Sex After Fascism: Memory and Morality in Twentieth-Century Germany. H-German, H-Net Reviews. January, 2006. <http://www.h-net.org/reviews/showrev.php?id=11348>

이 책의 제목처럼 독일 68 학생운동의 명백한 역사왜곡의 문제를 이처럼 지적했다.

“홀로코스트의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한 너무 많은 강조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 나치 과거사의 범죄들에 대해서 시끄럽게 비난했던 자들(독일 68 학생운동)이 반유대주의적 편견을 항상 극복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적 태도를 계속 가졌다. 홀로코스트를 성(性)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경향성은(tendency to use the Holocaust as a framework for the discussion of sexual problems) 독일인들로 하여금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적 인식 보다는 자기-연민만을(self-pity rather than historical awareness) 가지도록 했다”고 앤 앨런 교수는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의 연구를 잘 요약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앤 앨런 교수는 “다그마 헤르조그 교수가 나치즘의 범죄에 대한 독일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최소화하고 혹은 하찮아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독일들의 경향성을 비판하는 것은 옳다”고 소개한다. 45)

앤 앨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독일 68 성정치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헤르조그 교수는 성(性)과 정치를 관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막다른 길(dead end)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결론 짓는다. 환멸을 느낀 독일 68 학생운동의 베테랑들은 할 수 없이 성해방이 정치적 혁명을 발생시키지는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1970년대의 페미니스트들도 새롭게 ‘해방된’ 도덕이 옛날식의 성차별주의를 변호하는 하나의 유행적 근거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었다.” 46)

이 책은 이렇게 독일 68 성혁명 운동이 과장되고 과잉된 성정치와 성해방 담론을 통해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기에, 성혁명 사상은 지적 사기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독일 68 학생운동의 베테랑들도 성해방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발생시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독일 68 학생운동가들이 성정치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헤르조그 교수의 주장처럼 독일 68 성정치 운동은 그 역사왜곡으로 인해서 막다른 길(dead end)에 도착하게 되었다. 독일 68 성혁명이라는 진원지로부터 번진 사회주의 성정치와 글로벌 성혁명은 실패했고 21세기에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왜 어느날부터 정치 공론의 장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성정치 담론이 그렇게 뜨겁게 부상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성 소수자 담론은 계보학적으로는 독일제다. 우리는 이 독일 68 성혁명이 역사왜곡을 통해서 생산한 성정치 담론과 성 소수자 담론이 사상누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

45) Ann Allen. Review of Herzog, Dagmar, Sex After Fascism: Memory and Morality in Twentieth-Century Germany. H-German, H-Net Reviews. January, 2006. <http://www.h-net.org/reviews/showrev.php?id=11348>. “She is right to criticize Germans' tendency to avoid, minimize, or trivialize the responsibility of Germans for the crimes of National Socialism.”

46) Ann Allen. Review of Herzog, Dagmar, Sex After Fascism: Memory and Morality in Twentieth-Century Germany. H-German, H-Net Reviews. January, 2006. <http://www.h-net.org/reviews/showrev.php?id=11348>